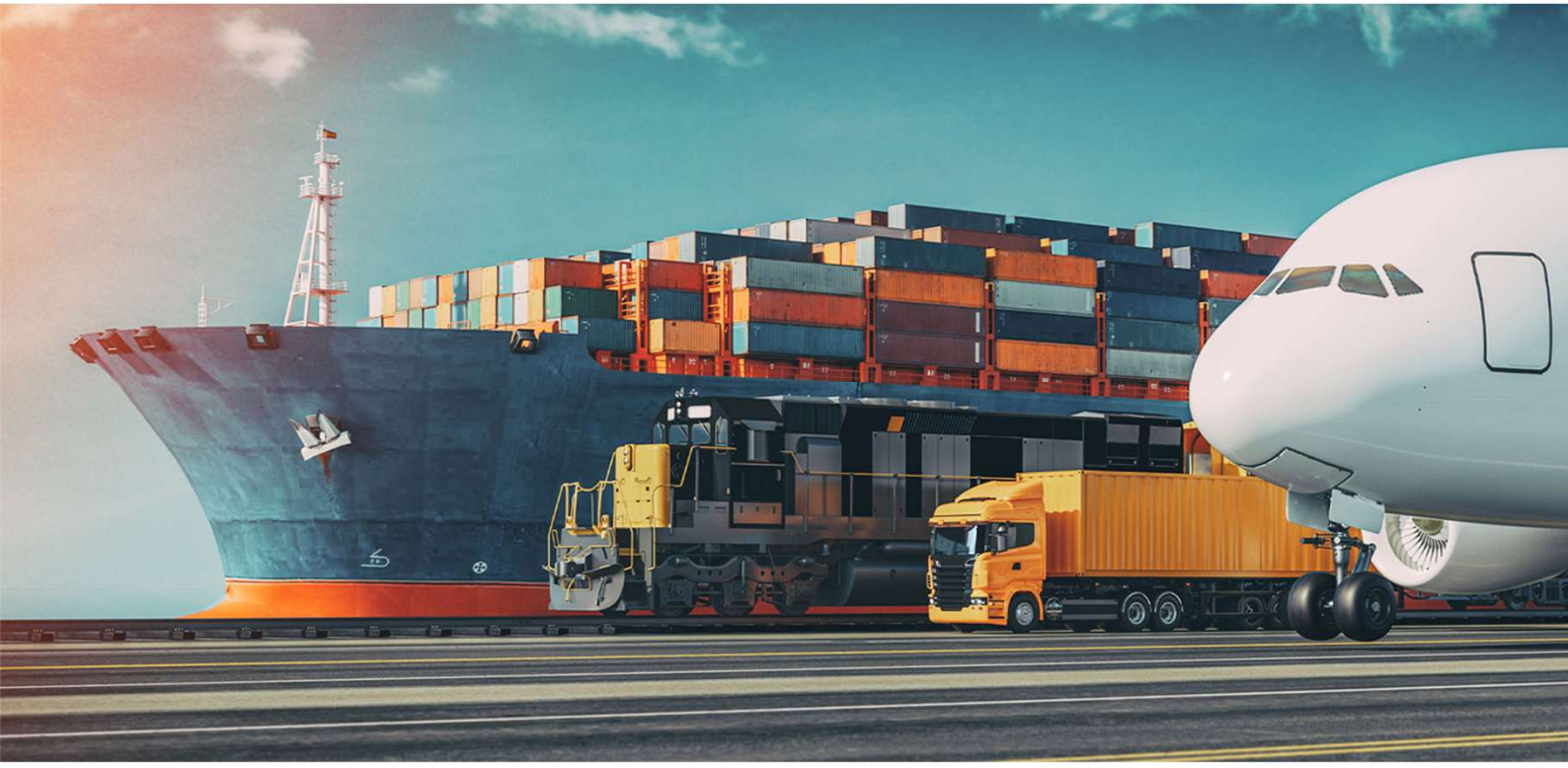
max logistics

MAX LOGISTICS

NEWSLETTER



2026년 1월호

MAX LOGISTICS

회사 소식

Annual Meeting



2025년도 Max Logistics Annual Meeting 중국 상해에서 개최

전 세계 각 지점의 주요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중장기 성장 전략 및 방향을 논의하고 지점 간 협업과 네트워크 판매를 강화하기 위한 연례 글로벌 회의입니다.

회의명 : Global Performance Review (연례 지점장 회의)

개최지 : 중국 상해 (Shanghai)

일 정 : 2025년 12월 8일(월) ~ 12월 10일(수), 2박 3일

참석자 : 본사 및 해외 전 지점 주요 임원 및 실무 책임자

형 식 : 세션별 발표 및 집중 토론

주요 논의 내용

- 2025년 전사 및 지점별 실적 리뷰
- 2026년 사업 전략 및 목표 설정
- 글로벌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공유
- 우수 사례 (Best Practice) 및 성공 사례 발표
- 지점 간 협업 과제 및 실행 방안 논의

기대 효과

- 글로벌 지점 간 정보 공유 및 시너지 강화
- 전사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실질적인 협업 과제 도출 및 실행력 제고
- 조직 결속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SEOUL, KOREA

바운드별 스케쥴

미주 (BSA/LUZ/GCR) 및 중남미

미주 LAX/ORD/JFK 및 주요 노선 지역(ATL/DFW) BUP 프로그램을 진행
KJ, OZ 스케쥴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BUP 작업 및 안정적인 Allocation에 기반한 스페이스 제공
OAL 직항을 포함한 다양한 T/S OAL SVC (WS/UA/DL등)구간의 경쟁력 있는 운임과 서비스 지원
주요 미주 지역 외 캐나다(YYZ/YVR) 및 중남미 (MEX/GRU/BOG/SCL 외) 상품 서비스

콘솔 및 BUP 스케쥴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JFK	KJ587	2330/0120+1 1610/1800 2330/0120+1	D2 D5 D7	DIRECT
	OZ222	0900/0900	DAILY	DIRECT
	DL158 DL196	0935/0840 2005/1330	DAILY	DTW T/S SEA-LAX T/S
LAX	KJ284/KJ286 KJ282	2330/1850	DAILY	DIRECT
	OZ202	1240/0650	DAILY	DIRECT
	DL172 / DL196	1940/1615	DAILY	SLC T/S, SEA T/S
SFO	OZ212	2050/1400	D13456	DIRECT
	DL172 / DL196	1940/1615	DAILY	SLC T/S, SEA T/S
SEA	OZ272	2100/1455	D12467	DIRECT
DFW	KJ244 / KJ242	2300/0335+1 0940/1405 1000/1425	D1 D37 D5	DIRECT
	DL170 DL158 DL172	1840/1655 1015/1025 1940/1615	DAILY	MSP-ATL T/S DTW T/S SLC T/S, 연결 D257
ORD	KJ244 KJ242/KJ248	0200/0155 2300/2255 0940/0925 1000/0945 0800/0755	D1 D13 D37 D5 D6	DIRECT
	DL158 DL170	1015/1025 1840/1655	DAILY	DTW T/S MSP T/S
ATL	KJ248	0200/0705 2300/0405+1 0800/1305	D1 D3 D6	DIRECT
	DL188 DL026 DL170	1625/1710 1850/1935 1840/1655	DAILY	DIRECT DIRECT MSP T/S

2026년 1월호

SEOUL, KOREA

바운드별 스케쥴

미주 (BSA/LUZ/GCR) 및 중남미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LAX	KJ284/KJ286 KJ282	2330/1830	D123456 D7	DIRECT	작업일 17시	안범준 매니저 (070-5069-9441) 조대호 매니저 (070-5096-9342)
	OZ202	1245/0800	DAILY	DIRECT	전일 17시	
	YP101	1320/0720	DAILY	DIRECT	전일 17시	
	UA806	1245/0620	DAILY	SFO T/S (TRUCKING)		
SFO	OZ212	2050/1530	DAILY	DIRECT	당일 15시	
	DL196	2005/1430	DAILY	SEA T/S		
ORD	KJ244 KJ242 KJ248	2300/2255 0800/0745 2300/2255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강준환 매니저 (070-5096-9869) 왕유진 매니저 (070-5096-9886)
	DL158	0935/0840	DAILY	DTW T/S	전일 17시	
ATL	KJ248	2300/0405+1	D357	DIRECT	작업일 17시	
	DL188	1750/1725	DAILY	DIRECT	당일 오전	
DFW	KJ244 KJ242	2300/0335+1 0800/1225	D1 D357	DIRECT	작업일 17시	
	DL026	1925/1850	DAILY	ATL T/S	당일 오전	
JFK	KJ587	2230/0020+1	D2	DIRECT	작업일 17시	양병규 매니저 (070-5096-9473)
	OZ222	0940/1055	DAILY	DIRECT	전일 18시	
	DL196	2005/1430	DAILY	SEA-LAX T/S	당일 15시	
YYZ/YVR	WS087	2045/1610	D146	YYC T/S	전일 17시	

메일: usa@maxlogis.com / **네이트온**: maxkorea_airexp@nate.com / **TEL**: 02-3144-2289

US 향 주요 PAX 항공사 선적 진행으로 직항 및 T/S 노선 개발 중 (OZ 집중 판매중)

항공사	운항노선	편명	기종	Frequency	ETD/ETA	Cut Off	Remark
OZ	ICN-JFK	OZ222	A350	Daily	09:40-10:55	전날 17:00	11, AUG~
	ICN-LAX	OZ204	A350	Daily	20:40-14:50	당일 12:00	15, JAN~
	ICN-SEA	OZ272	B772	D1,2,4,6,7	21:00-13:55	당일 12:00	1, JAN~
DL	ICN-SLC	DL 172	A350-900	Daily	19:40-16:15	당일 13:40	13. JUN~
	ICN-DTW	DL 158	A350-900	Daily	09:35-08:40	전날 17:00	
	ICN-ATL	DL 188	A350-900	Daily	17:50-17:25	당일 12:00	
	ICN-ATL	DL 026	A350-900	Daily	19:25-19:05	당일 13:00	
	ICN-MSP	DL 170	A350-900	Daily	19:30-16:50	당일 13:00	
	ICN-SEA	DL 196	A350-900	Daily	20:05-13:30	당일 14:00	
UA	ICN-SFO	UA 892	B777	Daily	18:00-11:35	당일 12:00	
		UA 806	B787	Daily	11:30-06:15	전날 17:00	
YP	ICN-LAX	YP 101	B787-9	Daily	12:45-08:20	전날 17:00	
	ICN-LAX	YP 103	B787-9	D1,3,5,7	22:05-17:20	당일 14:00	
	ICN-EWR	YP 131	B787-9	Daily	21:30-22:30	당일 14:00	
	ICN-SFO	YP 111	B787-9	D1,3,5,6,7	18:20-13:00	당일 12:00	
	ICN-HNL	YP 151	B787-9	D1,3,5,6	22:10-11:50	당일 14:00	2, JUL~
AC	ICN-YUL	AC 068	B787-8	D2,3,5,7	18:00-18:50	당일 12:00	
	ICN-YYZ	AC 062	B787-9	Daily	18:20-11:20	당일 12:00	
	ICN-YVR	AC 064	B787-9	Daily	16:55-09:55	당일 12:00	

SEOUL, KOREA

바운드별 스케쥴

유럽 (BSA/LUZ/GCR) 및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유럽 주요 지역(LHR/FRA/VIE/MXP)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진행

KJ, OZ 스케쥴 및 주요 OAL(QR/TK/LH/CV)을 통한 유럽 및 서남아시아를 포함한 이원 구간 지원

FRA/VIE에 대한 안정적 스페이스 및 경쟁력 있는 운임 지원 및 LHR/STN의 안정적인 스페이스 운영

중앙아시아 (ALA/TAS/IST) 지역에 대하여 OZ 및 OAL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지원

콘솔 및 BUP 스케쥴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FRA	FRTR	KJ795/KJ775 KJ793	22:30-10:00+1 22:00-11:05+1	화 금 / 수 토 목 일	DIRECT
LHR	FRTR	KJ793	22:30-22:00+1	목 일	STN T/S
VIE	FRTR	KJ795/ KJZ775 / KJ789 / KJ797	23:00-06:30+1 23:00-06:30+1	화 금 수 토 / 목 일	DIRECT
MXP	FRTR	KJ789KJZ797	22:30-10:05+1 22:30-10:05+1	목 일	DIRECT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OAL	QR	QR8985 QR8981	0135-0610 0155/0610	수 금 일 토	DOH T/S *T/TIME: 2~4DAYS
	LH	LH8385 LH8383	02:25-08:45 00:55-07:15	금 일 월	FRA T/S *T/TIME: 2~4DAYS
	TK	TK6545 TK0091 TK6545	14:55-20:25 23:20-04:50+1 11:25-17:40	목 금 일	IST T/S *T/TIME: 2~4DAYS
	CV, C8	CV7153 CV9015 CV7156	04:00-12:35 03:15-17:25 04:00-12:35	목 토 일	ICN-LUX *T/TIME: 2~4DAYS
		C8 7111 C8 7113	05:20-17:20 12:25-00:25+1	월 수	ICN-MXP *T/TIME: 2~4DAYS
	OZ	OZ541	09:00 - 15:15	월 화 수 목 토	ICN-FRA *T/TIME: 1DAY
		OZ561	14:05 - 19:35	화 목 금 일	ICN-FCO *T/TIME: 1DAY
		OZ551	09:35- 15:45	화 목 금 토	ICN-IST *T/TIME: 1DAY
		OZ511	11:50- 19:10	화 목 금 토 일	ICN-BCN *T/TIME: 1DAY
	SK	SK988	23:45-05:25+1	월 수 금	ICN-CPH DIRECT CPH T/S 진행 가능

SEOUL, KOREA

유럽 (BSA/LUZ/GCR) 및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FRA	FRTR	KJ795/KJ775 KJ793	22:30-10:00+1 22:00-11:05+1	화 금 / 수 토 목 일	DIRECT	작업일 17시	박주상 수석 (070-5096-9385) 임진슬 매니저 (070-5096-0003) 이성빈 매니저 (070-5096-9341)
LHR	FRTR	KJ793	22:30-22:00+1	목 일	STN T/S	작업일 17시	
VIE	FRTR	KJ795 KJ775 / KJ789 KJ797	23:00-06:30+1 23:00-06:30+1	화 금 수 토 / 목 일	DIRECT	작업일 17시	
MXP	FRTR	KJ789 KJ797	23:00-10:10+1 23:00-10:10+1	목 일	DIRECT	작업일 17시	

메일 : europe@maxlogis.com / 네이트온 : max_export1@nate.com / TEL : 02-3144-2289

항공사	운항노선	편명	기종	Frequency	ETD/ETA	Cut Off	Remark
OZ	ICN-BCN	OZ511	A359	D2,4,5,6,7	11:15-17:50	전날 17:00	01, SEP~
	ICN-IST	OZ551	B772	D2,4,5,6	09:35-15:45	전날 17:00	01, NOV~
	ICN-FRA	OZ541	A388	D1,2,3,4,6	09:00-15:15	전날 17:00	01, JAN~
	ICN-FCO	OZ561	A359	D2,4,5,7	14:05-19:35	전날 17:00	01, JAN~

바운드별 스케쥴

아시아(BSA/LUZ/GCR) 및 중일지역

주요 아시아 노선 (HAN/HKG/PVG)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운영

HKG 화물 별 특가 제공 및 TPE 행 특송 화물에 대한 안정적인 연말 스페이스 지원 가능

KJ, OZ PVG 및 HKG 그리고 HAN BUP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 및 서비스 제공

KJ, OZ 직항 이외 OAL 주요 운항 노선 프로모션으로 다양한 이원 구간 노선 서비스 구축 확보

항공사	운항노선	편명	기종	Frequency	ETD/ETA	Cut Off	Remark
OZ	ICN-TPE	OZ711	B772 등	Daily	08:00-09:50	전날 17:00	01, SEP~
		OZ713	A321 등	Daily	13:40-15:45	전날 17:00	
	ICN-BKK	OZ741	A359	Daily	18:05-22:00	당일 12:00	
	ICN-CGK	OZ761	B772	Daily	15:40-21:00	전날 17:00	
	ICN-MNL	OZ701	A333	Daily	07:35-10:35+1	전날 17:00	
		OZ703	B772	Daily	19:20-22:30+1	당일 12:00	
	ICN-SYD	OZ601	A388	Daily	20:00-08:20+1	당일 12:00	
	ICN-PVG	OZ361	A333	Daily	09:05-10:05	전날 17:00	
		OZ363	A321 등	Daily	10:50-11:55	전날 17:00	
		OZ365	A321 등	Daily	14:10-15:10	전날 17:00	
		OZ367	A321 등	Daily	20:00-21:05	당일 12:00	

SEOUL, KOREA

바운드별 스케쥴

아시아(BSA/LUZ/GCR) 및 중일지역

콘솔 및 BUP 스케쥴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PVG	KJ0987 KJ0947 KJ0957 KJ0937	월 1250-1405 화 0050-0205 / 0115-0230 수 0050-0205 / 0115-0230 목 0050-0205 / 1340-1455 금 1050-1205 토,일 0115-0230	DAILY	DIRECT
	OZ0361 OZ0363	0900-1005 1045-1145		
HKG	KJ973/971(73F)	2310-0200+1	DAILY	DIRECT
	KJ967,969(74F)	1050-1340	D2~7	DIRECT
HAN	KJ513,515 (73F)	2320-0150+1	DAILY	DIRECT
	KJ387,933,951,389(74F)	0040-0310	DAILY	DIRECT
NRT/KIX	NRT / KJ0194, KJ0198 KIX / KJ0192, KJ0182	NRT 수,목,금,토,일 1540-1820 화 1040-1320 KIX 화-일 1630-1825	D2-D7	DIRECT
	KIX OZ0112 OZ0114 OZ0118	0755-0940 1405-1550 토 제외 1605-1750	DAILY	DIRECT
TPE	OZ711 OZ713	1015-1150 1420-1550	DAILY	DIR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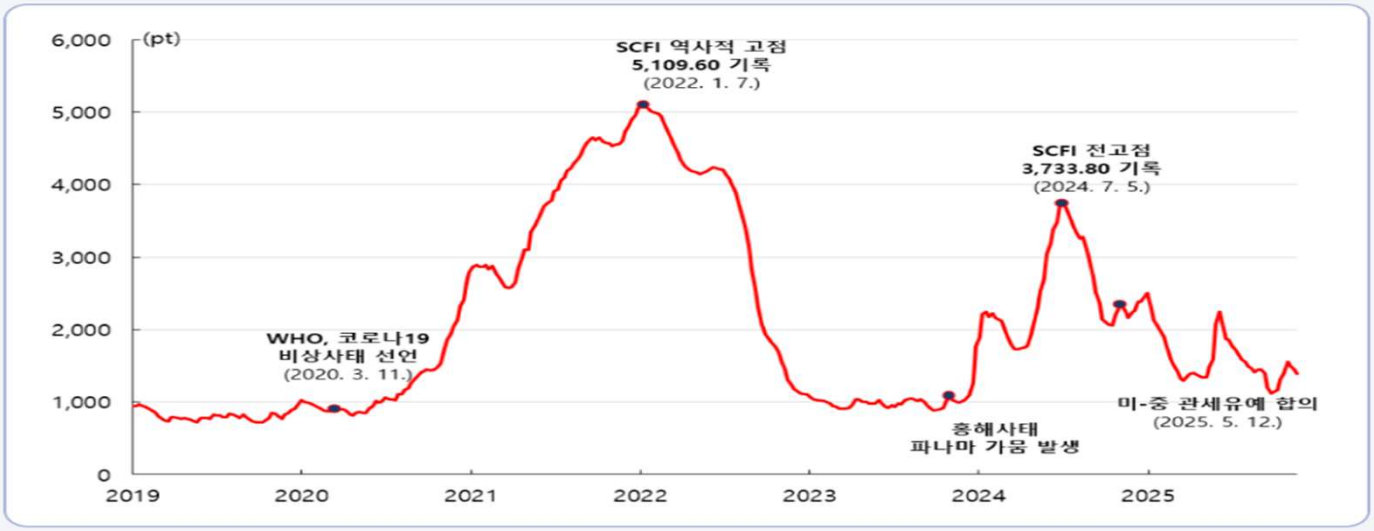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PVG	KJ0987 KJ0947	일자별 상이 0050-0205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곽지연 매니저 (070-5096-0004)
HKG	OZ745	DAILY / 1925-2240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김정은 매니저 (070-5096-9384) 한효정 매니저 (070-5096-9366) 윤현빈 매니저 (070-5096-9893)
	OZ967/OZ969	화,수,토,일 / 일자별 상이	화,수,토,일	DIRECT		
	OZ951/OZ953	화,수,토 / 2345-0735+1	화,수,토	HAN병합노선		
HAN	OZ733	DAILY / 일자별 상이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NRT	KJ0194 KJ0198	화 1040-1320 수-일 1540-1820	화-일	DIRECT	전일 17시	지민정 매니저 (070-5096-9340)
TPE	OZ711 OZ713	DAILY 1015-1150 1420-1550	DAILY	DIRECT	전일 17시	김지희 매니저 (070-5096-9470)

BUSAN, KOREA

해상 물류 동향

SCFI 운임지수 변동 추이



- **SCFI 지수는 10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11월 들어 다시 급격한 하락 국면으로 전환**
  - 11/28 기준 SCFI는 일부 반등이 있었으나, 미서안·미동안 노선 운임이 대폭 하락함으로써 전월 대비 약 9.5% 감소

<노선별 SCFI>

구분	종합지수	북유럽	지중해	미서안	미동안	중동	동남아
2025-11-28	1,403.13	1,404	2,232	1,632	2,428	1,697	540
2025-11-21	1,393.56	1,367	2,055	1,645	2.384	1,753	540
2025-11-14	1,451.38	1,417	2,029	1,823	2,600	1,805	531
2025-11-07	1,495.10	1,323	2,029	2,212	2,848	1,769	512

2026년 해상운송 시장 전망

- 2026년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는 장기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생산 거점 다변화는 중국 플러스 원에서 중국 플러스 다국으로 전환되며 무역 흐름이 변화함에
- 따라 인프라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정시성 불안과 항만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복 관리 강화와 블랭크 세일링 증가가 주요인으로 지목
- 중동 지역 불안정 속에서 수에즈 운하가 재개될 경우 운송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단기적인 혼란은 불가피
- 러시아가 전세계 원유 생산의 12퍼센트를 차지한다는 점도 핵심 위험 요소

BUSAN, KOREA

해상 물류 동향

아시아-유럽 항로 12월 물동량 급증에 따른 운임, 선복량 동반 강세

[비수기 이례적 수요 급증 및 운임 상승세 지속]

- **'New Normal'로서의 조기 선적(Front-loading) 현상:** 12월 초 아시아발 구주향 BKG 20만7천 TEU (직전 3주 대비 +10%) 기록 등 춘절(CNY) 전 물량 집중 심화. 1~10월 누적 2,195만 TEU(+8.6%)의 견조한 수요 기반 화주 간 선복(Space) 확보 경쟁 가열

- **Spot 운임의 가파른 상승:** 4분기 물동량 강세에 힘입어 12월 초 아시아-북유럽 $2,350/FEU(+80%), 지중해 $3,250/FEU(2배) 급등. 주요 선사, 1월초 운임 정점(Peak) 도달 및 2월 중순 춘절 전까지 고운임 기조 유지 전망

[역대 최대 선복량(Capacity) 투입 및 공급망 리스크 대응]

- **공급 확대 및 Blank Sailing 축소:** 1월 북유럽 117만 TEU, 지중해 84.9만 TEU 등 사상 최대 규모 선복 투입 주력. 임시 결항 (Blank Sailing) 규모를 12월 12.6만 TEU에서 1월 5.4만 TEU로 대폭 축소하며 가동률 극대화

- **홍해 리스크와 재고 비축:** 희망봉 우회, Lead Time 증가 및 스케줄 불안정 심화
  홍해 재개로 인한 현지 적체 가능성 대비 재고 확보 가속화

출처 : *HMM 컨테이너선대기획팀 / 선대운영MI Part*

HONG KONG, CHINA

홍콩 지점소식

- **2026년 1월 휴일 안내**

- 1월 1일 The first day of January

물류 동향

항공

홍콩 항공화물산업서비스(Hacis)와 Flexport 협업하여 홍콩을 주요 환승 허브로 육성.



Left to right: Left to right: Bert Ng, head of commercial and operations, Hacis; Henry Yeung, senior warehouse manager, Flexport; Derek Bushaw, head of airfreight Greater China, Flexport; Daniel Sanvicente, senior vice president, head of APAC, Flexport; Ringo Chan, executive director, Hacis; and Freda Wong,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Hacis

Photo: Hactl

- Hactl 산하의 홍콩 항공화물산업서비스(Hacis)는 Flexport의 환승 허브로 홍콩을 구축하기 위해 Flexport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Hacis는 Flexport에 우편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점차 통합 환승(Merge-in-Transit, MiT) 솔루션과 공항 직송 수출입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
- Hacis는 MiT 솔루션을 통해 홍콩 내 여러 출발지에서 출발한 화물을 통합하여 최종 배송 전 운송업체의 관리 하에 운송, 그리고 Airport Direct 서비스를 통해 화물을 수집, 배송, 서류 작업, 공항 내 보관, 컨테이너화 및 주문 처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홍콩 국제공항 슈퍼터미널 1의 계류장 바로 옆에 운영 시설을 위치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보장

HONG KONG, CHINA

물류 동향

항공

Hong Kong Air Cargo Singapore Services 재개 및 Chennai Services 정기 운항 전환

- 2025년 12월 17일 – 홍콩 에어카고는 싱가포르(SIN) 노선 정기 운항을 재개하고, 첸나이(MAA) 노선은 전세기에서 정기 운항으로 전환함을 발표했으며 두 노선 모두 2026년 1월 4일부터 운항 예정

Hong Kong (HKG) – Singapore (SIN) : From 4 January 2026 onwards / Flight Schedules

Flight No.	Route	Departure	Arrival	Operating Days
RH371	HKG ➜ SIN	06:00	10:00	Tuesday-Sunday
RH372	SIN ➜ HKG	11:30	15:30	Tuesday-Sunday

Hong Kong (HKG) – Chennai (MAA) : From 4 January 2026 onwards / Flight Schedules

Flight No.	Route	Departure	Arrival	Operating Days
RH9375	HKG ➜ MAA	10:20	13:30	Wednesday and Friday
RH9375	HKG ➜ MAA	17:00	20:10	Sunday
RH9376	MAA ➜ HKG	15:00	23:05	Wednesday and Friday
RH9376	MAA ➜ HKG	21:40	05:45（+1）	Sunday

TOKYO, JAPAN

도쿄 지점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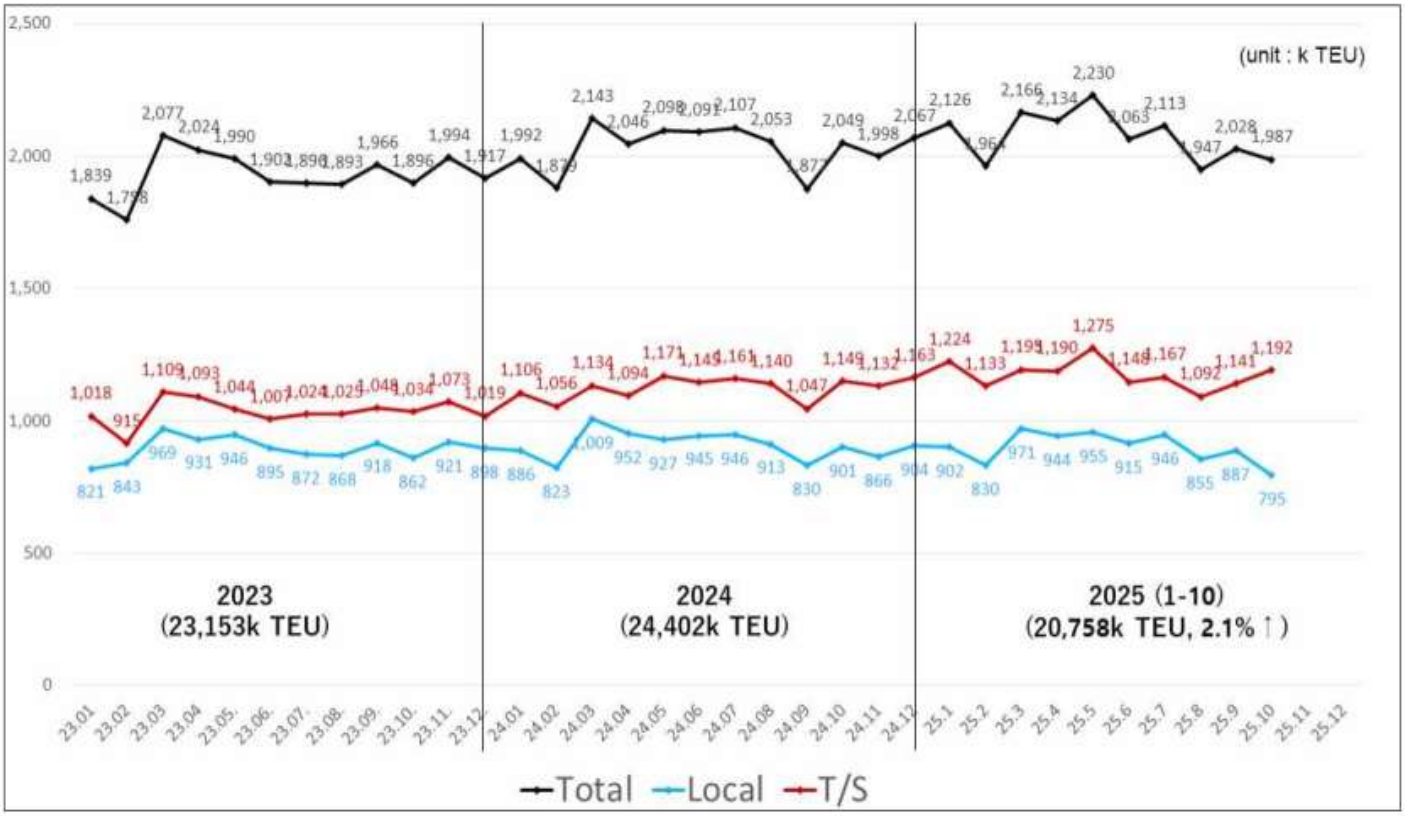
- **2026년 1월 공휴일**
  - * 12월 27일(토) ~ 2026년 1월 4일(일) : 연말 연시 휴무
  - * 2026년 1월 12일(월) : 성인의 날

물류 동향

해상

▫ **(부산항 총 물동량) 20,758천TEU 처리 (2.1%↑)**

*** 수출입 9,001천TEU (1.5%↓) / 환적 11,757천TEU (5.0%↑)**



TOKYO,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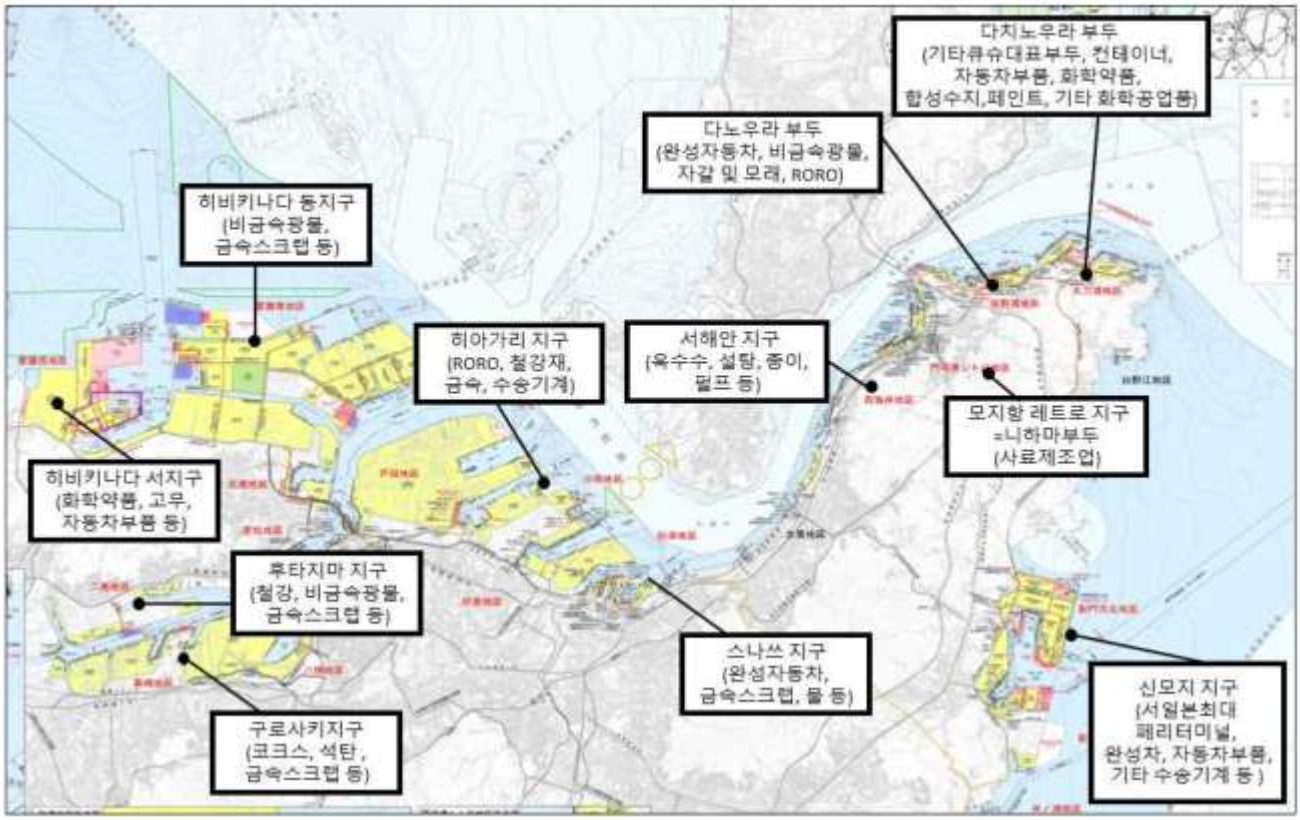
물류 동향

기타큐슈항 다치노우라 CT, 인력 부족으로 내년 2월부터 일요일 하역 '중단'

▫ **지방항만을 중심으로 노동자 부족이 '컨 터미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기타큐슈항 다치노우라 CT가 항만 작업시간 단축 방침을 결정해 이용자들에게 통보하였음**

- 구체적으로는'26년 2월 1일 이후 일요일 본선 하역은 전면 중단되며, 현재 오전 8시 30분 부터 정오까지 운영되는 토요일 게이트 반출입은 2월 7일부터 하루 종일 폐쇄하게 됨
- 토요일 본선 하역은 계속 실시되며, 신선품 등의 반출입에 관해서는 사전예약으로 대응함

〈 기타큐슈항 지도 〉



* 기타큐슈항은 전국 7위 규모로 모지(타치노우라) '컨 터미널과 히비키 '컨 터미널이 있음

** 다치우라 CT는 제1·제2터미널로 이뤄진 서일본의 대표적인 터미널로, 월간 약 180편의 '컨 선이 기항하는 국제·국내 물류의 핵심 거점

TOKYO, JAPAN

물류 동향

스즈요해운, 700TEU·440TEU급 취항, 내항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가속

▫ **내항 피더 선사 스즈요해운이 기존 대비 대형 내항'컨 선 취항을 가속하고 있으며, 대형화를 통해 수송능력을 높이고, 국제 피더수송 및 모달시프트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방침**

▫ **스즈요해운은 최근 동사 운항선 중 최대 선형이 되는 700TEU급 내항 컨테이너선 '겐부'를 동일본 항로에 투입**

- '겐부'의 운항 항로는 요코하마– 고베– 오사카– 나고야– 시미즈– 요코하마
- 스즈요 해운은 2023년 자사 운항선박으로 최대 선형이었던 400TEU급 컨테이너선 '기요우라마루'를 취항 시켰으나, 이번 '겐부'는 그보다 더 대형



겐부 (700TEU급)



기요우라마루 (400TEU급)

▫ **또한 긴카이유센과의 제휴로 게이힌(도쿄, 요코하마)–센다이항로에 투입해 왔던 내항 컨테이너선 '하루카제'도 대형화하여, 440TEU급 신규 '하루카제'를 신조선으로 취항**

- 기존 '하루카제'는 150TEU급으로 2002년 12월 준공되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번 대형화를 추진해 수송능력을 크게 증강하고, 운송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

▫ **스즈요해운은 대형선박을 투입함으로써 배선 효율을 높이고, 다양화하는 고객 니즈에 대응**

- 더불어 '전략항으로의 집화'라는 정부정책에 기여하여 기항노선 유지/확대는 물론, 내항 해운으로 모달 시프트를 통해 인력부족 대응과 환경부하 저감에도 기여해 나갈 방침

< 선사별 내항피더 컨테이너선 보유현황 ('25.3.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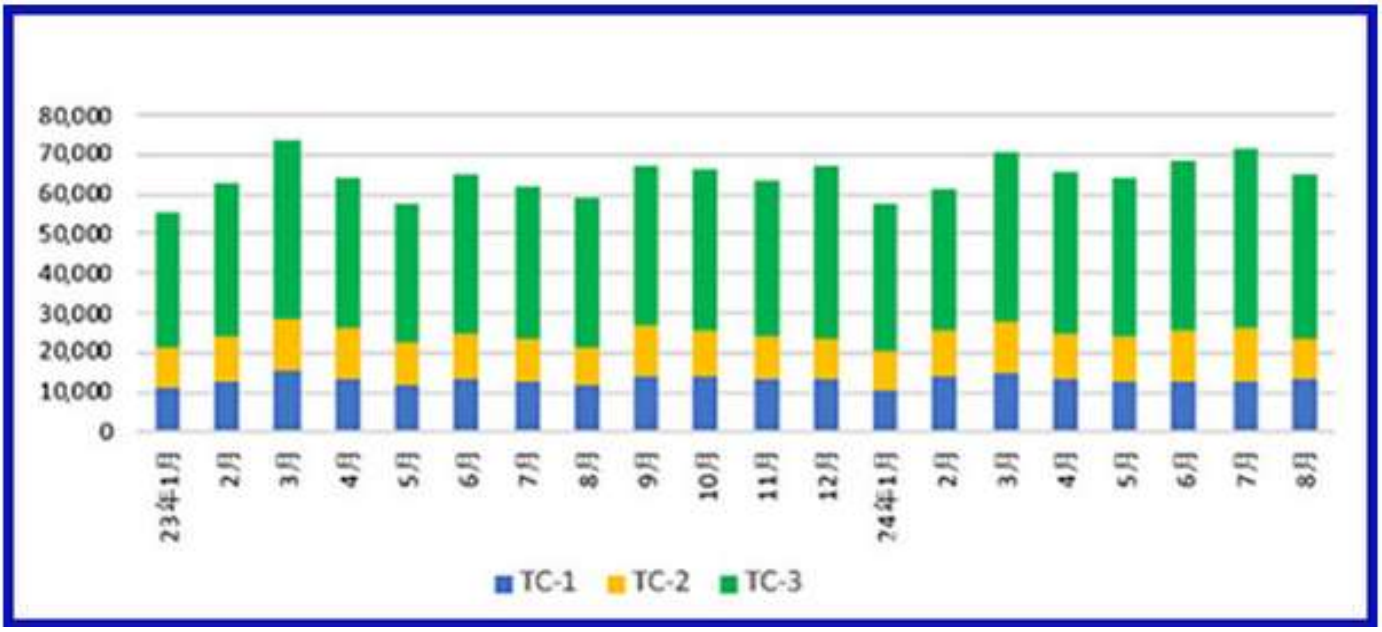
선사명	선종별	척수
이모토상운	컨테이너 전용선	32
스즈요해운	일반화물선	4
	컨테이너 전용선	8
	소 계	12
일본통운	로로선	5
유니엑스 NCT	일반화물선	3
	컨테이너 전용선	1
	소 계	4
긴카이유센	로로선	2
기타	-	4
합계	-	59

TOKYO, JAPAN

물류 동향

항공

日 포워더, 수출 항공화물 5개월 연속 증가



▫ 8월 일본 포워더들의 국제선 수출 항공화물은 6만 4,903t으로 전년동기 대비 10.7% 증가 5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 일본 포워더들의 한국노선에 대한 항공화물은 3,952t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

▫ 일본 항공화물운송협회(JAFA)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중국 10.7% 증가한 14,328t, 대만도 22.1% 늘어난 5,612t, 홍콩 역시 6.5% 증가한 3,691t을 각각 기록

▫ 이 기간 수입 항공화물 취급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한 134,597건, 중량도 7.2% 감소한 51,698t으로 각각 나타남

공항명	수출 화물량 (전년 대비)	수입 화물량 (전년 대비)	주요 특징 및 분석
NRT 공항	17.2만t (+2.4%)	15.8만t (+1.8%)	일본 최대 거점. 반도체 장비 및 전자부품 수출 견조.
KIX 공항	6.1만t (+3.2%)	5.5만t (-0.5%)	서일본 허브. 의약품 및 정밀기기 수출이 물량 지지.
HND 공항	3.2万t (-1.5%)	4.1万t (-2.8%)	여객기 하부 화물칸(Belly Cargo) 이용 비중 높음. 소폭 감소.
NGO 공항	1.1만t (+5.4%)	0.9만t (+1.2%)	자동차 부품 및 기계류 수출 물동량 회복세.
FUK 공항	0.4만t (+12.0%)	0.3만t (+3.5%)	큐슈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활성화로 인한 물량 급증.
KJJ 공항	0.05만t (-15.0%)	0.01만t (-40.0%)	화물 전용기 운항 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감소세.

TOKYO, JAPAN

물류 동향

日、공항 조업에 자율주행 연이어 도입

▫ `레벨4` 자율주행…생산성과 생력화 적극 추진



- 일본 항공사들이 공항 항공화물 조업 분야에 자율주행 기술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을 통해 투입 인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항공물류 운영 효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
- 일본항공(JAL)은 이달 15일부터 하네다 공항(HND)과 나리타공항(NRT)에서 자율주행 레벨 4 (특정 조건 하에서 완전 무인 운전) 기술을 적용한 토잉 트랙터의 실용화를 시작했다고 밝힘
- 그 동안은 운전자가 상시 차량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회피 조작을 수행하는 레벨 3 단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도입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한 것이다. 안전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무인 운행이 가능해짐
- 전일본공수(ANA, NH)는 하네다 공항에서 국내선 정기편을 대상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을 적용한 화물 운송을 본격적으로 시작.
- 현재 운영 중인 자율주행 토잉 트랙터는 총 3대로 ANA는 올해 안으로 추가로 3대를 도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 해당 차량은 공항 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 위치 추정 기능과 장애물 검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운용 효율 측면에서는 복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요타와 협력해 개발한 FMS (Fleet Management System) 를 도입해 운영 중으로, 이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의 동선 관리와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음
- 한편 일본 항공사들은 국토교통성 항공국이 주도하는 '항공물류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첨단 기술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번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의 실용화는 만성적인 항공 조업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자, 전기차(EV) 기반 운용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도 기대

TAIPEI, TAIWAN

대만 지점소식

2026년 1월 공휴일

1월 1일 신정 휴일

물류 동향

풀필먼트·AI 물류 거점 구축

쿠팡 - 대만 정부간 AI 기반 물류 네트워크 구축 협약 체결, 대만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AI 풀필먼트 허브 (자동화·통합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는 물류 서비스 고도화 및 배송 속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

전자상거래 물류 확대

대만 전자상거래시장 성장과 더불어 인터넷 주문처리 물류·라스트마일(delivery) 서비스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만 국내 소비자 뿐 아니라 글로벌 유통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글로벌 해운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2026년 글로벌 해운은 공급과잉은 지속되고 교역량 증가율은 낮아 운임하락 및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관세 및 무역 장벽 영향

전 세계적으로 관세 및 무역장벽 강화가 진행되면서 공급망 · 물류 경로에 추가적인 비용 · 시간 리스크가 발생, 특히 미국·중국 간 무역 긴장 등은 대만 물류 시장 변동의 큰 변수로 작용

에너지 및 인프라 비용

AI 및 자동화 물류는 전력 수요가 매우 크며 높은 에너지 비용과 인프라 자 부담은 물류기업의 비용 리스크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

TAIPEI, TAIWAN

경제 동향 및 전망

2026년 대만 경제는 AI·반도체 수출 확대로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통 산업의 부진, 대외 환경 리스크로 인해 성장폭은 2025년 대비 둔화될 전망

[2026년 대만 경제 리스크 체크리스트]

-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대만 긴장, 미국과 중국 관계 불확실성
- 무역·관세 리스크 미국 수입관세 정책 변화, 글로벌 무역 마찰
- 산업 집중 리스크 반도체/AI 산업 과도한 의존
- 수요 둔화 리스크 중국·미국 등 외부 수요 약화 가능성
- 금융시장 변동성 외국인 투자 이탈, 주가 변동성 확대
- 기업 신뢰도 리스크 CEO 리스크 인식 증가
- 환율 리스크 NTD 변동성 및 수출 경쟁력 영향

SHANGHAI, CHINA

지점 소식

- 1월 공휴일 안내

- 2026년 1월 1일 ~ 3일은 신정 휴무일
- 1월 4일 일요일은 대체 근무일

* 긴급 연락처
항공 : 채향자부장 +86 155 0214 9791
해상 : 공현주부장 +86 188 2377 8753

물류 동향

항공

- 연말 B2B / B2C 화물 출하로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스페이스 부족 및 운임 상승하였으나, 52주차 화물 적체 해소 및 운임 하락 추세. 26년 1월은 춘절을 앞두고 전자상거래 화물 위주 수요 강세가 유지 될 것으로 보여, 항공운임의 급격한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유럽향은 첨단기술 제품, 전자상거래 화물 위주로 연말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연말 이후 운임 일부 하락 진행 중이나, 수요 강세가 유지 될 것으로 예상

- 미국향은 연말 성수기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크리스마스 이후 지속 둔화 추세이며 무역 회복 조짐도 보이지 않아 수요 감소가 이어 질 것으로 예상. 단, 공급조정으로 타이트한 스페이스

- 아시아 및 중동향은 수요 및 공급 안정적인 추세이며, 운임도 안정적으로 유지 됨. 다만 일본향은 여객기 공급 감소로 화물 운송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나 운임은 상승하였음

• KJ PVG발 1월 스케쥴

MON	TUE	WED	THU	FRI	SAT	SUN
KJ988 B76F 1600/1905	KJ958 B74F 2030/2335 06,20,27 1545/1850 13	KJ988 B74F 1935/2240	KJ958 B74F 2010/2315	KJ988 B74F 2050/2355	KJ958 B74F 1545/1850 03 2115/0020 10,17,24,31	KJ938 B74F 1815/2120 04,18,25 1905/2210 11
	KJ948 B73F 0315/0620	KJ948 B73F 0315/0620	KJ948 B73F 0315/0620			

SHANGHAI, CHINA

물류 동향

해상

- 글로벌 해운 운임 지수가 2주 연속 상승하여 SCFI는 전주 대비 46.46P 상승하였으며, 25년 10월 말 이후 처음으로 1500대를 회복
  전체적 상승폭은 크지 않으나 저점 대비 반등추세가 유지 중이며 선사들이 공급조절 등으로 운임 방어중이기는 하나 효과는 제한적임
  춘절 전 단기적으로 선적 집중으로 인한 운임 상승 압력이 예상

구 분	전년	전월	12/5	12/12	전주比
SCFI	**2,384**	**1,451**	**1,398**	**1,506**	**109**
美서안	4,023	1,823	1,550	1,780	230
美동안	5,494	2,600	2,315	2,652	337
중남미	-	1,391	1,604	1,388	△216
남 미	5,608	1,691	1,689	1,486	△203
북유럽	2,963	1,417	1,400	1,538	138
지중해	3,746	2,029	2,300	2,737	437
아프카	4,542	3,645	3,457	3,393	△64
대양주	1,922	1,745	1,276	1,241	△35
중 동	1,507	1,805	1,781	1,881	100
동남아	725	531	543	556	13
日동안	307	321	321	321	-
한 국	138	141	143	139	△4

경제동향

- 중국 하이난 정부는 12월 18일 하이난 전체를 관외지역으로 봉관 및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발표

- 하이난 자유무역항 화물의 입/출입 및 유통/관세정책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섬 전체를 세관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세제혜택이 확대됨

GUANGZHOU, CHINA

물류 동향

지점 소식

주요 노선 개요

- KJ 화물기 / OZ 여객기 화물 운송 SPACE 유지
- KJ 대형 화물 주3회, OZ DAILY 서비스 제공 가능

편명	출발지	출발 시간	도착지	도착시간	기종	ETD	RE
KJ0934	CAN	10:00	ICN	14:20	74F	D2,4	화물기
KJ0932	CAN	10:00	ICN	14:20	74F	D5	화물기
OZ0370	CAN	12:25	ICN	17:00	333	DAILY	여객기
OZ0356	CAN	01:15	ICN	05:45	321	DAILY	여객기

항공 물류

성수기 진입... 한·중발 북미·유럽향 운임 강세

중국 → 북미 : 강력한 연말 소비 흐름에 힘입어 LAX·ORD 노선 운임 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나 크리스마스 앞두고 상승세 소폭 완화 예상. 반면 JFK 노선은 전자상거래 화물이 시장을 주도하며 중량 화물 부족으로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

중국 → 유럽 : 프랑크푸르트(FRA)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와 고운임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전까지 강세가 이어질 전망. 특히 AMS향은 일반 화물과 전자상거래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며 스페이스가 극도로 부족해 운임이 최고 수준을 경신

2028년까지 중국은 전자상거래 확대로 4.4% 항공화물 ↑

오는 2028년까지 아 • 태 지역의 항공화물은 연평균 4.3%, 중동은 3.3% 각각 성장할 전망

국제공항위원회(ACI)가 최근 밝힌 '아 • 태 및 중동지역 2028년까지 전망'에 따르면 이와 같이 예상

아 • 태지역은 글로벌 반도체 • 전자제품 중심의 생산거점으로 세계 항공화물시장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당분간 전자상거래 화물이 항공화물 성장세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 예상

또한, 오는 2028년까지 동남아의 항공화물 시장은 연평균 5.5% 성장할 전망, 동남아의 이와 같은 성장세는 인도 경제 성장세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중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수요 확대로 연평균 4.4%, 동남아시아는 '중국+1' 역할 확대로 연평균 5.2% 성장세가 각각 예상

GUANGZHOU, CHINA

물류 동향

해운 물류

• **북미** : 12/15부 GRI(일반운임인상) 영향으로 반등/전미소매협회(NRF), 12월 미국 컨테이너 수입이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 관세 부담과 재고 조정 영향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 제기

• **유럽** : 12/15부 GRI 및 연말 밀어내기 수요로 운임 상승세/JOC, 아시아-유럽항로 수요는 춘절 이전 1월까지 견조할 것으로 전망

동남아 : 동남아 춘절 전 밀어내기 및 중동 성수기(라마단) 수요 증가/호주 수요 둔화세 지속

• **아시아 –유럽 항로 수요 춘절 이전 1월 까지 견조세 전망**

JOC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아시아–유럽향 선적 부킹 물동량은 직전 3주 대비 약 10% 증가하며 연말 수요 강세가 확인되고 있음. Xeneta 역시 2023년 이후 12월이 아시아–유럽항로 연중 최대 성수기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맞춰 선사들도 유럽향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다만 HPAG는 시장운임이 1월 초 정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 한편 일부에서는 수에즈 운하 재개를 우려한 사전 재고 확보가 수요를 밀어 올렸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공급망 관리업체들은 불확실한 리드타임을 고려할 때 이를 주된 수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

• **2025년 10월까지 中 항만 '컨' 물량 '6.4% 증가'**

2025년 1~10월 중국 항만별 '컨' 물동량

<단위 : 1만 TEU>

구분	순위	항만	물동량	증감(%)
연안 항만	1	상하이(上海)	4,607	6.5%
	2	닝보-저우산(寧波-舟山)	3,627	10.5%
	3	선전(深圳)	2,934	6.1%
	4	칭다오(青島)	2,762	7.2%
	5	광저우(廣州)	2,278	4.8%
	6	톈진(天津)	2,085	3.0%
	7	샤먼(厦門)	1,013	1.8%
	8	베이부완(北部灣)	820	10.5%
	9	롄윤강(連雲港)	583	8.1%
	10	르자오(日照)	613	10.5%
내륙 하천항만	11	수저우(蘇州)	846	4.0%
	12	난징(南京)	335	9.0%
	13	보산(佛山)	300	-4.0%

지난 1~10월 중국 항만의 전체 컨테이너물동량은 2,942만 TEU로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

중국교통운수부 집계에 따르면 연안항이 2,591만TEU로 6.6%, 내륙 하천항이 351만TEU로 4.7%가 각각 증가

5위를 차지한 광저우(广州)는 총 2,278만TEU로 전년대비 4.8% 증가

GUANGZHOU, CHINA

물류 동향

국내 LCC , 대형기를 앞세워 밸리카고(여객기 하부 화물실) 사업을 본격 확대

국내 LCC들이 A330·B787 등 대형기 도입 확대와 함께 밸리카고(여객기 하부 화물) 사업을 적극 확장하며 수익 다변화에 성공하고 있음. 고환율과 지정학 리스크로 수익 안정성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화물 부문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

특히 티웨이는 A330 (대형기, 소형기 대비 최대 3배 화물 적재 가능) 도입 이후 화물 처리량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에어프레미아 역시 B787 기반의 화물 운송으로 전체 매출의 13%를 화물 사업이 기여

항공업계는 “여객 중심 구조였던 LCC 모델이 화물사업을 통한 이원화 구조로 진화하고 있으며, 기존 대형 항공사 중심의 화물시장 경쟁구도 또한 재편되는 흐름”이라고 전망

CMA CGM, 수에즈 운항 ‘부분 재개’ 선언… 다른 선사들은 여전히 신중 모드

CMA CGM이 주요 글로벌 선사 가운데 가장 먼저 수에즈 운하 복귀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임

CMA는 12월부터 일부 노선에서 시험 운항을 시작으로 내년 1~2월에는 백홀 (Backhaul) 구간 중심으로 단계적 통항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

특히 12월에는 FAL3 노선에서 2만3천TEU급 초대형선의 시험 통과가 예정돼 있으며, 1월 FAL1·2 월 MEX 노선 순으로 점진적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

하지만 다른 글로벌 선사들은 기조는 사뭇 다른데 Maersk와 Hapag-Lloyd는 “완전한 안전 확보 전에는 운항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복귀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채 관망중 MSC 또한 수에즈 복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Ocean·THE·Premier 등 주요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들도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중 *(출처 : Alphaliner 2025/11/26)*

*백홀(Backhaul) 구간 : 왕복 노선 중 ‘되돌아오는 구간 (복귀편)’을 의미.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운임이 낮은 편

2025년 1~11월 중국 철로 화물, 37억2천700만t(톤)...전년比 2.7% 증가

지난 1~11월 중국의 철로를 통해 발송된 화물 규모가 37억2천700만t(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
지난 19일 중국국가철로그룹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수치이며 하루 평균 발송량은 18만7천 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확대된 것으로 집계

같은 기간 중국 국가철로를 이용해 발송한 철로-수로·해상 복합운송 컨테이너 화물은 1천578만9천TEU로 15.4% 증가하였고 철로-수로·해상 복합운송 ‘단일 운송장' 물류 제품의 누적 예약물량은 3만4천TEU를 기록

QINGDAO, CHINA

물류 동향

수입 화물 검역증명 E-Inspection and Quarantine Certificate

12월 15일부터, 중국 세관의《수입 화물 검역증명》이 전면적으로 전자화되었습니다. 기업은 단일 창구 플랫폼에서 직접 전자 증명서를 조회하고 자체 출력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세관에 가서 종이 증명서를 수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1.단일창구《입화물품 검역증명》미리보기 기능 운영 안내

기업은 카드 매체를 사용하여 단일창구에 로그인한 후, 화물 신고 모듈 > 수입 신고서 신고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검역검사 비자 신고 요소】를 선택합니다(아래 그림 참조). 검역검사 비자 신고 요소 인터페이스가 팝업됩니다.



2.해당 인터페이스에서【입화물품 검역증명(발급 신청)】을 체크박스로 선택하면, 해당 항목 오른쪽에 "미리보기" 버튼이 나타납니다(아래 그림 참조).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증명서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海南섬 자유 무역구

海南 자유무역항의 전도 폐쇄 운영(2025년 12월 18일 정식 시행)은 특별한 관세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국제 물류 업계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량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QINGDAO, CHINA

물류 동향

중일 항공편 대규모 감편으로 인한 항공 화물 시장 충격 분석 보고서 (2026년 1월)

본 보고서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외교 마찰이 양국 간 항공 화물 운송에 미친 현황과 파급효과 분석.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가 여객 운송을 넘어 화물 공급망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운송 경로의 재편과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

1. 현황 개요: 갈등 장기화와 운항 대규모 중단

사건 발단: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시사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외교부, 문화관광부 등을 통해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를 공식 권고. 이 조치는 사실상의 '한일령(限日令)'으로 인식되며, 정치적 갈등이 경제 및 물류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됨

항공사 대응: 중국 국적 항공사들은 정부 지침에 발맞춰 일본 노선에 대한 대규모 운항 조정을 단행.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주요 항공사는 일본 노선 항공권의 무료 취소·변경 조치를 2026년 3월 28일까지 연장 발표했으며, 이는 갈등이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

2. 항공 화물 운송 현황 및 영향 분석

규모: 2025년 12월 한 달간 중국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운항 편수는 편수 기준 25%, 좌석 수 기준 24% 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 특히 삿포로(신치토세) 노선은 약 43%, 오사카(간사이) 노선은 약 35%의 운항이 취소되는 등 타격이 큼

영향: 이로 인해 항공 화물, 특히 여객기 하단 화물칸(Bellyhold)을 통해 운송되는 복합 화물의 공급이 급격히 위축됨. 이는 신선 식품, 전자제품 부품, 긴급 의료 물자 등 시한성 화물(Speed Cargo)의 신속한 운송 체계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고 있음

특정 노선 폐지: 베이징(다싱)-삿포로, 상하이(푸동)-이바라키, 후저우-오키나와 등 15개 직항 노선이 12월 중 완전히 운휴되었으며, 대체 직항편이 없는 상황

QINGDAO, CHINA

물류 동향

3.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 중국 항공사의 무료 취소 정책 연장은 2026년 3월 말까지 항공 화물 운송 용량의 지속적 부족이 예상됨을 의미. 이는 분기말, 중국 춘제(춘절) 등 전통적 물동량 성수기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

아시아 물류 허브 재편 가능성: 직항 운송의 공백은 한국 (SEA&AIR), 대만, 홍콩 등 인근 아시아 물류 허브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음

화주의 대응 필요성: 시한성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는 조기 예약을 통한 운송 공간 확보, 유연한 대체 경로(제3국 환승) 모색, 그리고 운임 상승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 항공 운송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해상 및 철도 등 다중운송모드(Multimodal) 전략의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현재 중국 측의 공식적인 화물 운송 제한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여객기 감편에 따른 복합 화물 용량의 '사실상의 축소'는 항공 화물 시장에 상당한 교란 요인으로 작용. 갈등의 정치적 해결 시점이 불분명한 가운데, 관련 공급망 이해관계자들은 보다 탄력적이고 다각화된 물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SHENZHEN, CHINA

선전 지점소식

항공 운송: 향후 전망 및 트렌드

최근 동향과 계획을 종합하면, 선전 국제항공화물 운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

• 지속적인 "해륙공철(海陸空鐵)" 입체 물류 네트워크 구축: 선전은 "공항형 국가 물류 허브" 구축에 주력. 항공 운송 외에 해철 연합 운송, 고속철 물류 전용선, 전국 첫 "공철궤 연합 운송(空鐵軌聯運)" 네트워크(드론+지하철+무인차)도 동시에 발전 중. 이러한 복합 연계 운송 네트워크의 완비는 선전 물류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스마트화 및 자동화 구축 심화: "공항 스마트 물류" 개혁은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음. 계획에 따르면, 선전은 물류업의 대규모 설비 갱신과 스마트화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이는 미래 창고, 분류에서 통관까지의 전체 프로세스에서 디지털화와 자동화 수준이 더욱 제고될 것임을 의미

• 정책 지원 및 산업 연계: 선전시는 2024년 말 전문 조치를 발표하며 2026년까지 "글로벌 중요 영향력을 가진 물류 중심지" 건설을 가속화할 것을 천명. 구체적으로는 국제 화물 항로 확장, 전용 화물기 증편 지원, 여러 전문화 물류 집적구 조성 등이 포함되어 항공 운송의 장기 발전에 명확한 정책적 보장을 제공

SHENZHEN, CHINA

선전 지점소식

최근 운영 관련 제안

국제 화물 중개 기구의 업계 관찰에 따르면, 최근(2025년 12월~2026년 1월) 출하 계획이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운송력 및 예약: 연말 전통적 성수기 영향으로 2025년 12월 중순 이전 아시아 주요 수출 허브의 항공 공급 부족 예상되며 특히 대형화물이나 시간에 민감한 화물의 경우 지연을 피하기 위해 최소 4-5일 전에 선적 예약을 권고

• 운임 추세: 높은 운임 수준은 12월 중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1월 초 시장은 짧은 명절 후 침체기를 맞이해 공급 상황이 호전될 수 있어, 비긴급 화물 운송에 적합한 시기일 수 있음
• 설날 영향: 2026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음력 설 전) 기간중 주의 필요. 이 시기 제조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출하를 하게 되어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 대비가 필요

전반적으로, 선전 국제 항공 화물 운송은 "백만톤급"이라는 역사적 돌파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 네트워크 확대 및 스마트화개혁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하고 있음

해상 운송 시장: 운임 저조와 노선 변국

해상 운송 시장은 운송 능력 과잉과 핵심 노선 복구 가능성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 현재 운임 부진: 글로벌 수요 부진 및 운송 능력 충분으로 태평양 횡단 등 주요 노선 현물 운임이 12월 내내 하방 압력 지속

• 홍해/수에즈 운하 동향: 최대 변수. CMA CGM 선사는 2026년 1월 중순부터 일부 노선이 홍해와 수에즈 운하 경유로 복구된다고 발표. 더 많은 선사가 참여한다면 아시아-유럽 노선 운송 능력이 크게 증가, 운임 추가 하락 가능성 있으며, 운송 소요 시간은 대폭 단축될 것이나 현재 다수 선사는 여전히 관망 중

SHENZHEN, CHINA

선전 지점소식

중유럽행 열차: 양적 질적 향상의 안정적 선택

중유럽행 열차는 연말 강력한 안정성과 성장성을 보여주며, 현재 국제 물류 중 예측 가능한 선택입니다

- 운송량 증가: 12월 10일 기준, 만저우리, 쑤이펀허 등 세관을 통과하는 "동부 경로"의 2025년 통과량은 5,000열을 돌파했으며, 화물 가치도 지속 증가 중

- 서비스 업그레이드: "전 구간 시간표" 열차 확대, 스자좡—폴란드 바르샤바 신규 노선은 매주 금요일 정시 출발, 전 구간 약 14일로 안정적이며, 소요 시간이 일반 열차보다 30% 이상 단축

- 허브 구축: 청두 중유럽행 열차 집결 센터는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전체 집하운송 능력 제고.

최근 운영 조언

1. **항공 운송**: 12월 하순~1월 초 출하 계획 즉시 확인, 조기 예약 필요
   1월 1일 시행되는 항공 화물 등록 신규에 주목
   (항공 화물 운송 정보 관리를 완비하고 정보 등록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국민항공화물운송관리규정에 따라 민항국은 근일 '국민항공 화물 운송 등록 사항 시행 방법'을 제정 발표, 2026년 1월 1일부 시행)

2. **해상 운송**: 고객의 2026년 1분기 운송 계획 수립 시, 홍해 노선 복구 가능성을 핵심 변수로 고려해야 하며, 운임 변동 대응 방안 준비

3. **중유럽행 열차**: 소요 시간 안정성을 요구하고 운임에 민감한 고객에게 "전 구간 시간표" 열차를 적극 추천

4. **규정 준수 점검**: 2026년 1월 이후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주문 즉시 정리, 신규 완전 준수 확인

SHENZHEN, CHINA

항공 서비스

Route : SZX → ICN

AIRLINE	FLIGHT	ETD	ETA	TYPE	
CZ	CZ3089	8:40	13:40	A320-251N	passenger plane
ZH	ZH633	9:05	13:50	737-87L	
	ZH631	11:05	15:40	A320-251N	
KE	KE828	12:45	16:40	A330-323	
OZ	OZ372	13:50	18:05	A330-323	
UPS	5X0196	03:31	08:06	B767F	cargo aircraft

해상 서비스

Route : SHENZHEN → BUSAN/INCHEON

POL	POD	Carrier	SKDL
SHEKOU	BUSAN	KMTC	Week 7~10 Voyage
		HEUNG-A	Week 4~5Voyage
		PAN OCEAN	Week 2~3Voyage
		CK LINE	Week 2Voyage
		SITC	Week 3Voyage

POL	POD	Carrier	SKDL per Week
SHEKOU	INCHEON	KMTC	Week 6~7 Voyage
		HEUNG-A	Week 3 Voyage
		PAN OCEAN	Week 3 Voyage
		CK LINE	Week 3 Voyage
		SITC	Week 2Voyage

SHENZHEN, CHINA

보세구 서비스

Route: 해외 → 중국 보세구 → 중국 고객사 / 해외 고객사

1. 보세 운송 및 Storage
2. 보세 수출/입 통관
3. C/L 라벨링 작업, Repacking 작업
4. Trucking, Loading/Unloading









TIANJIN, CHINA

천진시 물류동향

항공 물류

- KJ : TSN-ICN 구간 +300KG건 10 SHIPMENTS/MONTH 이상 경우, +300KG건 REFUND 가능

- 연말 가까워서 유럽&미국향 항공 SPACE는 TIGHT 상황이라 진행 시 주의 필요

- 천진은 물류네트워크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AIR&AIR ",TRUCK FLIGHT" 등 복합수송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중국 춘절 연휴 가까워서 연휴 전 TRUCKING CHG 인상 조정 가능

TSN-ICN구간 2026년 1월 스케줄:

KJ997/KJ998 X WE X ICN/TSN/ICN X B76F
ICN 1600L 1715L TSN 1915L 2200L ICN

KJ997/KJ998 X SA X ICN/TSN/ICN X B76F
ICN 1855L 2010L TSN 2140L 0025L/1 ICN

KJ977/KJ978 X TU, TH, FR, SU X ICN/TSN/ICN X B73F
ICN 0300L 0415L TSN 0515L 0800L ICN

TIANJIN, CHINA

천진시 물류동향

해상 물류

- 중원해운(中远海运) 스마트 위험물 물류 센터가 톈진 타이다난강(泰达南港)에서 가동 2025년 12월 1일에 정식 운영을 시작한 이 센터는 총 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으며,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지역의 위험물 운송 안전성과 효율을 제고

- 12월 현재 톈진항은 새로운 항로 개설 소식은 없었지만, 기존 운영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했음. 12월 11일 시장 배서 청구 정보에 따르면, 톈진항에서 동남아시아(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중해(튀니지)乃至남미(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 이르는 항로가 활발히 운행되었으며, 주로 도금 판지, 도금 코일판 등 산업 자재를 운송했음. 한편, 대종 상품 유통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12월 둘째 주 톈진항의 염화칼륨 재고량은 약 6.6만 톤으로 기록되어 첫째 주보다 소폭 감소

- 항로 네트워크와 운송 능력: 2025년 대비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11월 신규 개통된 두 개의 동남아시아 직항 노선이 본격 되며, 더 빈번한 배차와 직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베트남, 태국 등지로의 운송 시간은 환적 화물보다 약 1/3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임

- 물동량과 효율: 예상대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톈진항의 2025년 전반기 3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3.2% 증가한 추세와 지속적인 스마트 항만 건설로 인한 작업 효율 향상에 기반하여, 1월 전체 운영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

- 통관 편의화: 세관의 각종 편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톈진신강(天津新港) 세관이 시행하는 '사전 감독 도입, 도착 즉시 검사' 및 '원산지 신고 + 항만 검역 + 직접 적재' 등의 모드는 통관 효율을 보장할 것이며, 특히 신선 농산물과 같이 시한성 화물에 유용할 것으로 보임

CHONGQING, CHINA

충칭 지점소식

- 안정적인 반도체,전자제품 등 수입/수출 및 국내운송 업무제공.
- 반도체 생산공장 창고업무 외주 받아 고객과 화물 특성에 따라 Sorting 및 보관 Service 제공.
- 충칭지점 주요 핸들링 지역: CKG / CTU / KMG / XIY.
- **1월 공휴일**: 1월1일~3일,대체 근무일 4일.

충칭시 수출입 물류 현황

1.1 전체 무역 전문 분석

12월은 연말 마무리 월로, 충칭시의 수출입 무역은 일반적으로 "분투적 성장" 특성을 보이며, 전자정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이 60%를 초과. 수입은 반도체자재, 생활 상품 등 위주. 전 3분기 증가율(12.3%)과 연말 재고 구매 수요를 고려할 때, 연간 수출입 총액은 78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 안정화, 구조 최적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1.2 주요 업무 지역

- **아세안**: 서부 육해신통로를 바탕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 대한 수출이 30% 이상 증가했으며, 주요 상품은 기계전자 제품과 농산물
- **EU**: 중유럽 열차 '위신오' 노선이 자동차 부품 및 스마트 장비 수출을 지원하며, 독일과 폴란드가 주요 목적지
- **RCEP 지역**: 관세 감면 정책이 화학 원료 및 경공업 제품의 수입 비용을 낮추고 무역 편의화 수준 제고

CHONGQING, CHINA

충칭시 수출입 물류 현황

2.1 항공 수출입 운영 현황 및 특징

- **화물량**: 충칭 장베이 공항은 12월 화물 및 우편 물동량 4.8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45만 톤을 돌파하여 전년 대비 약 15% 증가. 국제 노선은 런던, 로스앤젤레스 등 20여 개의 허브 도시를 커버하며, 냉장 농산물(예: 오랜지, 돼지고기등)은 수출 항공 물동량의 25%를 차지

- **유효성 보장**: "녹색 채널"을 통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포의 48시간 통관이 가능하며, 12월 '쌍십이' 활동 기간 동안 국제 택배 일일 처리량이 10만 건을 초과

2.2 해운 수출입 운영 현황

- **항만 운영**: 과원항의 12월 컨테이너 처리량은 18만 TEU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처리량은 200만 TEU를 돌파할 전망. 철도-해상 복합 운송 비중은 60%를 넘어섬. 장강 황금 수로를 통해 상하이항으로 중계되면서 대외 무역 화물의 평균 운송 기간은 7일로 단축

- **서부 육해신통로**: 친저우항을 경유한 동남아 항로 연간 3,000여 차 철도 운행, 12월에는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 '명절 주문' 운송을 중점적으로 보장

2.3 철송/육송 수출입 운영 현황

- **중유럽 화물열차**: 12월에는 중유럽 화물열차(위안신오) 180편이 운행될 예정이며, 연간 운행량은 2,000편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환적화물 비율은 58%로 증가했으며,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완제품, 목재, 기계 장비

- **육해신통로 철도**: 광시(廣西) 핑샹(憑祥), 윈난(雲南) 모한(磨憨) 항구까지의 화물열차가 주당 15편으로 증편 운행되며, 12월 냉장 전용열차는 열대과일, 해산물 등 화물 가치가 5억 위안을 초과

2026년 1월호

CHONGQING, CHINA

충칭시 수출입 물류 현황

운송방식	12월 화물운송량	주요상품	핵심 Port 및 증감률
철송	180 차	- 자동차 부품 - 목재 - 설비 등	위안신오 중유럽 선 증감율 8%
해운	18만 TEU	- 기계제품 - 대종상품	과원항,친저우항 증감율 12%
항공	4.8 만톤	- 생선 - 전자상거래상품	장베이 공항 증감율 15%

3. 미래 전망과 제안

3. 1. 단기적 위협

겨울철 일부 지역의 눈과 얼음 날씨는 도로 집하 및 운송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글로벌 공급망 조정 배경에서 일부 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위험에 직면

3. 2. 장기적 기회

- 충칭 국제물류허브단지 "스마트 항구" 업그레이드, 2026년까지 다중운송 "일단제" 전면 실현 되리라 기대

서부 육해신통로와 중유럽 열차의 연동 효과가 강화되면서 '더불 순환' 물류 폐쇄 루프가 형성될 전망

CHONGQING, CHINA

항공 수출 일정

YEAR /MONTH	항공사	FLT TYPE		Route		Mon	Tue	Wed	Thu	Fri	Sat	Sun
		(P/C)	기종	출발지	도착지							
202601	CA	P	B738	CKG	ICN	CA439	CA439	CA439	CA439	CA439	CA439	CA439
	KJ	C	B737	CTU	ICN			KJ212		KJ212	KJ212	KJ212
	3U	P	A320	TFU	ICN		3U3973		3U3973		3U3973	
	KE	P	A330	XIY	ICN	KE812	KE812	KE812	KE812	KE812	KE812	KE812
	KE	C	B747F						KE0328		KE0328	
	CF	C	B737F	XIY	ICN		CF201		CF201	CF201		
	CI	C	747F	CKG	TPE			CI5998			CI5998	
	BR	C	B77X	CKG	TPE				BR0678		BR0678	
	CX	C	74Y	CKG	HKG			CX3261				
	CX	C	74Y				CX3263					CX3263
	CX	P	333				CX929	CX929		CX929	CX929	CX929
	CX	P	333			CX945			CX945			
	PN	P	A320	CKG	HAN	PN6423	PN6423	PN6423	PN6423	PN6423	PN6423	PN6423
	HT	C	737F	CKG	HAN	HT3861				HT3861		HT3861
	CX	P	32Q	HKG	HAN	CX743	CX743	CX743	CX743		CX743	CX743
	CX	P	32Q				CX741	CX741	CX741	CX741	CX741	CX741
	CX	C	74Y			CX2049						
	CX	C	74N				CX3247		CX3247		CX3247	
	CI	C	747F	CKG	TPE			CI5998			CI5998	
	SQ	P	737	CKG	SIN	SQ819	SQ819	SQ819	SQ819	SQ819	SQ819	SQ819

SINGAPORE

싱가포르 지점소식

- **1월 공휴일**: 1일(목) New Year's Day(신정)

항공 : 여객기 콘솔 서비스 + 화물기 서비스

- Route : SIN → ICN
- OZ 여객기 DAILY CONSOL SERVICE 운영
- KJ 화물기 장비, 벌크 화물 전문 서비스 운영

*1월 2일, 23일, 25일 KJ 화물기 캔슬 (사유: 항공기정비)

Flight No.	ETD	ETA	Frequency	Route	Remark
OZ752 (PAX)	22:50	06:40	Daily	DIR	– GCR Only – Height Limit: 160cm
KJ (FRT)	11:20	18:50	3, 5, 7	DIR	– 장비, 벌크 화물

물류 동향

1. 싱가포르 물류 시황 요약

- **견고한 성장세 유지** : 연말 성수기 효과 및 미·중 통상 갈등 효과로 수출량 전년 대비 6.7% 증가했으며 전문가들은 2025년 GDP 성장률: 4%대로 예상, 싱가포르 화물 및 물류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6.32%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2. 운송 부문별 동향

1) 항공(AIR)

- 꾸준한 성장세 유지 중, 12월 현재 연말 성수기 물량 집중 및 하이테크(반도체,전자) 품목의 수출 수요 매우 견고
- 신선식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특수 화물 성장세

2) 해상(OCEAN)

- 싱가포르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 대비 8.3%증가하는 역대급 물동량을 기록하며, 글로벌 허브 항만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음

SINGAPORE

물류동향

3) 이커머스 (E-COMMERCE)

-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시장은 플랫폼간 경쟁 심화로 고속 성장세 유지, 기존의 Shopee와 Lazada에 이어 TikTok Shop 같은 소셜커머스 플랫폼 추가로 경쟁 심화
- 해외 판매자들은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빠른 배송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내 재고 보관 및 풀필먼트 서비스 등 물류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추세

3. 특이사항

2026년 1월부터 "스마트 물류"와 "친환경 전환" 정책 시작

1) 스마트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물류 시스템 표준화 확대 : 스마트 항만 시스템, 디지털 벙커링(Digital Bunkering), 무서류 기반 운영 시스템 표준화 등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물류 허브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자 함

2) 친환경 규제 및 비용 전가

- **항공 부문 SAF 사용 의무화**: 2026년부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연료인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사용 의무화, 항공사들은 연료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 SAF 할증료(Surcharge)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항공 화물 운송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 예상
- **해상 부문 MSGI**(Maritime Singapore Green Initiative) **제도 적용** : 저탄소 연료 사용 선박과 고효율 선박에 인센티브/감면 혜택을 강화 예정, 친환경 선박을 이용하는 선사 및 화주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비친환경 선박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효과



HANOI, VIET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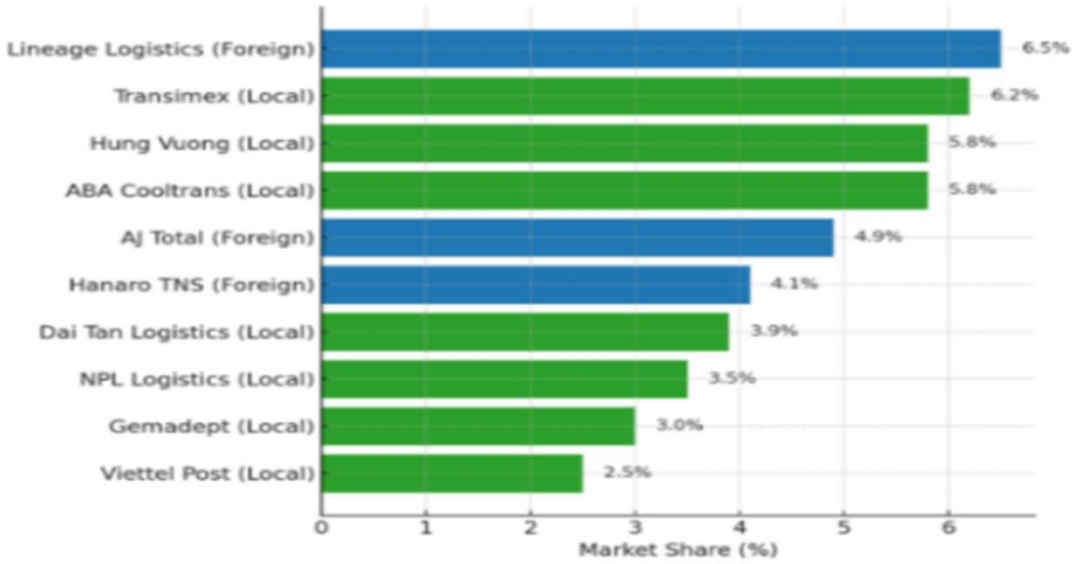
하노이 지점소식

- **1월 공휴일**: 1일(목)~2일(금) New Year's Day(신정)

베트남 콜드체인 산업 현황

- 베트남 콜드체인 시장은 식품,농수산물,의약품 등 다양한 사업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 2024년 2억200만 달러에서 2025년 2억9500만 달러로 반등.
- 특히 의약품 유통 ,온라인 신선픽품 배송,냉동 내장 창고 인프라 확중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

<베트남 10대 물류기업 및 시장 점유율>
(단위: %)



콜드체인 인프라 현황

- 콜드체인 인프라는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냉장창고 용량의 87%가 남부에 위치
  이는 수산물 가공 및 농산물 생산지와 소비시장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 때문
- 시장 구조는 2025년에 가가 2억100만 달러(냉장창고)와 9400만 달러(냉동 운송)로 확대될 전망
- 전자 상거래 확산과 신선제품 배송 증가로 운송 부분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줌

물류 산업의 정책 및 규제 환경

- 상법과 투자법을 근간으로 다수의 하위 법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
-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조건부 사업자로 분류되며,서비스 분양별로 지분 제한을 적용
- 창고업과 화물 운송 주선업은 100% 외국 자본 설립이 가능해 시장 진입이 자유로움

HO CHI MINH, VIETNAM

호치민 지점 뉴스

- 로칼 영업 과장 입사 : MS Bich Ngoc

경제 동향 및 전향

달러 약세’ 베트남, 암시장 환율 큰 폭으로 내려…공식시장 괴리율 3.5%

베트남 암시장 달러/동(USD/VND) 환율이 12월 들어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공식 환율과 괴리가 좁혀지고 있다

18일 베트남 사설 환전소 매도 환율은 2만6950동으로 전거래일 대비 0.19% 하락. 지난달 중순 최고였던 2만8000동과 비교하면 900동 이상, 2.5%포인트 하락한 것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공식/암시장 간 환율 괴리는 지난달 최고치보다 0.3%포인트 줄어 현재 3.5% 수준을 보이고 있음. 국제 시장에서 달러약세가 지속되면서 달러/동 환율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었다는 평가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10일(현지시간)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낮춰 3회 연속 금리를 인하.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3.75% 수준으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음

18일 오후 3시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0.02% 내린 98.38을 나타내고 있음. 같은날 베트남 중앙은행은 전일보다 5동 오른 2만5151동을 기준환율로 고시. 4대 국영상업은행 중 하나인 비엣콤은행(Vietcombank 종목코드 VCB)의 매도 환율은 전일 대비 5동 오른 2만6403동을 나타남

HO CHI MINH, VIETNAM

경제 동향 및 전향

항공

- 호치민의 경우, 해상화물이 메인 화물인 관계로 항공공급은 지속적으로 줄어 들것으로 예상
- 대한항공/베트남에어라인 : 여객기 DAY FLIGHT : NARROW BODY, NIGHT FLIGHT : WIDE BODY. 아시아나 : DAY, NIGHT : NARROW BODY.
- 대한항공/아시아나/베트남 에어등 한베간 항공운임 큰 변동 없음
- 호치민발 한국 및 한국 이원 T/S 항공운임 또한 큰 변동 없음

해상

- 호치민 PORT CONGESTION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대략 2-3일정도 DELAY 지속
- 운임은 호치민발 한국착 및 제 3세계 미주착 등 전체적으로 큰 변동 없음

BANGKOK, THAILAND

방콕 지점소식

- **1월 공휴일**: 1일(목)~2일(금) New Year's Day(신정)

물류 동향 - 항공

태국발/착 항공수출 & 항공수입 운영 안내

사유 : 방콕공항 TG Terminal & BFS Terminal 내 화물 물동량 증가 & 처리 용량 한계 발생

1. 항공 수입 (POD : BKK Airport) 운영 현황

TG Terminal

공항창고 입고 및 로케이션: 기존 5~6시간 → **10~12시간**

D/O 수령: 3~4시간 → **5~6시간**

수입통관: 1~2시간 → **3~4시간**

화물 픽업: 2~3시간 → **5~6시간**

현황 : 전반적으로 **기존 대비 약 2배 수준의 리드타임 소요**

BFS Terminal

공항창고 입고 및 로케이션: 6~7시간 → **12~24시간**

D/O 수령: 3~4시간 → **8~10시간**

수입통관: 2~3시간 → **4~5시간**

화물 픽업: 3~4시간 → **7~8시간**

현황 : 입고 단계부터 **적체 발생**, 긴급 화물 주의 필요

BANGKOK, THAILAND

물류 동향 - 항공

2. 항공 수출 (POL : BKK Airport) 운영 현황

TG Terminal

공항창고 입고 & 언로딩: 2~3시간 → **3~4시간**

Weight Check: 1~2시간 → **3시간**

수출통관: 1~2시간 → **2시간**

화물적재: 1시간 → **2~3시간**

현황 : Cut-off 타이트한 화물 사전 관리 필요.

BFS Terminal

공항창고입고 & 언로딩: 3~4시간 → 현재 **약 3일**

Weight Check: 3~4시간 → **10~12시간**

수출통관: 2~3시간 → **7~8시간**

화물적재: 2~3시간 → **8~10시간**

현황 : 수출 화물 **적체 심각** – 긴급/타이트 스케줄 부적합.

BANGKOK, THAILAND

물류 동향 - 항공

3. Transit Cargo Notice

- TG Terminal의 경우 일시적으로 Transit (경유)선적 화물 Embargo
- 기존 리드타임 기준으로 스케줄 운영 시 예상치 못한 일정변동 및 고객 클레임 발생 가능성 매우 높음

운영 영향

• BFS 터미널 적체로 인한 수입·수출 전반적인 지연 발생
• 일부 항공사의 출고·적재 일정 불안정
• 기존 리드타임 기준 스케줄 유지 시 리스크 증가

운영 권고 사항

• BFS 터미널을 사용하는 LCC 항공사 (VN,SQ,CZ) 진행 지양
• 가능 시 TG 터미널로 입고되는 국적기 항공사 (KE,OZ,LJ,TG) 위주로 진행 권고.
• 항공 선적 전 태국 현지와 사전 스케줄 및 운영 현황 확인 필수

air market reviews & updates

- 방콕 공항 터미널 운영 환경변화 및 화물 물동량 급증이 겹치면서 현재 BFS 터미널 내 처리 용량 한계가 발생되었고, TG 터미널 또한 악영향이 끼치는 상황

- 향후 항공건 진행 시, BFS 터미널로 입항 항공사 지향 및 TG Terminal로 입항하는 항공사로 진행 권고

- 선적 진행 시, 태국 현지와 사전 스케줄 및 현황 확인 필수

- 일시적인 운영 상황에 따른 상황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 및 영향도는 달라질 수 있음

- BFS Terminal 및 Transit 화물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긴급 항공건의 경우, 태국 현지측 과 사전조율 및 일정관리가 매우 중요

BANGKOK, THAILAND

물류 동향 - 해상(수출)

Suez Canal : 글로벌 해운사들의 '복귀 계획' 정리

태국은 아시아 ↔ 유럽간 해상 운송에서 중요한 수출 기반 국가로, 수에즈 운하 재개 여부가 직접적인 물류 비용, 납기, 운임 시장에 영향을 미침

- 태국에서 유럽 방향으로 이동하는 화물들은 현재 대부분 희망봉(Cape of Good Hope) 우회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리드타임 & 해상운임에 악역향
- 수에즈 복귀가 유럽 향 물류 비용을 낮추면, 비용 절감 → 경쟁력 개선 → 장기적인 수출 확대 여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음
- Ocean Network Express가 (RCL 및 파트너들과 Red Sea 노선 슬롯차터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해역 서비스에 재진입할 계획을 발표

태국 해상 보안 강화

태국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가 최근 해상 운송과 관련한 보안 정책 강화 발표

- 태국 선박이 군수물자 등의 위험 운송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리 조치 확대
- 군수품·유류 등 전략 물자가 캄보디아로 불법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상 경비·검문 강화

Ocean market reviews & updates

- 현재 한국->태국으로 들어오는 물량 대비 태국->한국 물동량이 떨어지는 추세로 인하여, 해상운임이 26년 1월 기준 인하가 되었으나, 다시 점차 상승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장 상황
- 홍해 지역 안보 상황, 보험료·선사 정책, 항만 혼잡 고려가 선행돼야 실제 운항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2026년 중·후반까지 점진적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
- 태국-캄보디아 전쟁으로 인하여 국경 분쟁 및 안보 불안 상황에서 태국의 물류·해상 운송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는 상황이며 특히,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강화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 높음

BANGKOK, THAILAND

물류 동향 - 해상(수입)

미국산 옥수수 수입 관세 철폐 및 물량 확대

- 미국산 옥수수 관세를 0%로 철폐하고, 기존 연간 약 54,600톤 수준이던 수입 할당량을 100만톤으로 약 18배 확대예정
- 가축 사료 원자재 확보 및 양국 무역 확대 취지
- 미국산 옥수수의 대량 수입 확대는 태국 곡물 물동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미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 추진

- 태국 정부는 1만 개 이상 미국산 수입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입액이 향후 약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발표
- 미국발 컨테이너·벌크화물 수입 증가 요인

태국–캄보디아 분쟁, 해상 리스크로 확대 가능성

- 태국-캄보디아 국경 충돌이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분쟁이 육지 전선을 넘어 아시아 중요 해역인 *아라유황해(Gulf of Thailand)*로 확산
- 태국 해군은 태국 선박들을 차단하고, 캄보디아로 연료·군수품 운반을 막기 위한 해상 작전
- ASEAN과 중국 측이 즉각적 휴전과 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양국간 방위·외교 회담 예정

Ocean market reviews & updates

- 미국 발 태국향 수입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회전율이 개선되고 편도 항로 불균형이 완화되며, 중장기적으로 Spot 운임 급등 리스크는 감소하고 장기 계약 운임 협상 여지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관세 인하로 가격 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규 미국 발 수입업체 유입 및 기존 수입업체의 물량 확대 예상
- 미국에서 원료를 조달해 태국에서 생산 후 한국 및 ASEAN으로 재수출하는 삼각무역 구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중국발 선적의 경우, 스페이스 부족현상 및 일정딜레이가 매우 심한 상황이며, 해상운임까지 지속 상승 될 것으로 예상

BANGKOK, THAILAND

물류 동향 – 사회/경제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 2025년 12월 들어 국경 지역에서 포격, 공중전(공습)이 재개되며 양측 사상자·피해 증가
- 중국을 비롯한 외부 국가들이 즉각적인 휴전과 대화를 촉구하며 외교적 중재 움직임이 이어짐
- 거주민 대규모 이동, 시장·상점 폐쇄, 노동력 유출 등 사회적 피해가 현실화

물류·무역 영향

- 국경의 모든 주요 육상 통로(Aranyaprathet–Poipet 포함 18개 체크포인트)가 폐쇄됨
- 수출입 문서·통관도 중단 → 통관사·포워딩사 물량 감소
- 국경 무역가치는 약 97% 감소하는 등 거의 마비 수준으로 떨어짐

대체 운송 루트 확보 노력

1. 우회 국경 루트 (태국→라오스→캄보디아 루트)

현황 : 거리·비용 ↑**(500km → 1,500km+)** → 운임 급등 및 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함

2. 해상 운송으로 일부 선회

현황 : 태국의 라엠찡항, 트랏·클롱야이 소규모 항구를 통한 해상 운송 증가

3. 항공 운송

현황 : 긴급 화물·고부가가치 품목의 경우 항공 활용 증가하였으나, 물량 커버 어려움

Ocean market reviews & updates

-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이 2025년 12월 들어 무력 충돌 수준으로 격화되면서 주요 육상 국경 통로가 전면 폐쇄되었고, 이에 따라 양국 간 국경 운송과 무역은 사실상 마비 상태
- 국경 통관 중단과 수출입 문서 처리 정지로 통관사·포워딩사의 기존 국경 물량이 급감하였으며, 국경 무역 가치는 약 97% 감소하는 등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구조적 충격이 발생
- 육상 운송이 불가능해지면서 물류 흐름은 태국→라오스→캄보디아 우회 루트, 태국 동부 항만을 활용한 해상 운송, 그리고 긴급·고부가가치 화물 중심의 항공 운송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거리 증가와 제한된 처리 능력으로 인해 운임과 리드타임 부담은 크게 상승한 상황

PENANG, MALYASIA

페낭 지점소식

- **1월 공휴일**: 1일(목) New Year's Day(신정)

바운드별 스케쥴

1월 말 KE Schedule (8월 이후 변동 없음)

Temporary & Changeable

출발지	도착지	화				수				목			
		8월26일				8월27일				8월28일			
PEN	ICN	14:30	21:45	74Y	Freighter	8:20	18:40	77X	Freighter	12:40	19:40	77X	Freighter
KUL	ICN	23:20	07:05+1	333	Passenger	8:55	16:15	74Y	Freighter	23:20	07:05+1	333	Passenger
						23:20	07:05+1	333	Passenger				
출발지	도착지	금				토				일			
		8월29일				8월30일				8월31일			
PEN	ICN	14:30	21:45	74Y	Freighter	10:15	17:20	74Y	Freighter	10:50	18:05	77X	Freighter
KUL	ICN	8:15	18:45	77X	Freighter	23:20	07:05+1	333	Passenger	23:20	07:05+1	333	Passenger
		23:20	07:05+1	333	Passenger								

- PEN-ICN 구간: 기존 주5회에서 6월달부터 주6회증편이후 변동없이 지속 중
  대한항공의 대형고객사 BOSCH의 지속적인 화물 출하로 ICN T/S 미국착 화물 증대 유지

- KUL-ICN 구간: 기존 여객기 Daily, 화물기 주2회로 변동없이 지속 중

PENANG, MALYASIA

물류 동향

MJets Air 와 카타르 카고가 말레이시아의 항공 화물 네트워크를 강화

- MJets Air 가 말레이시아 국내 항공 화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카타르항공 그룹과 양자 계약 체결
- 이번 계약에 따라 카타르항공은 사바와 사라왁 전역의 주요 출발지에서 화물 용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며, 화물은 쿠알라룸푸르와 도하를 거쳐 카타르항공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환적될 예정
- MJets Air가 카타르항공의 글로벌 진출과 강력한 상업적 입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함으로써 파트너십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언급
-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LIA)에 위치한 MJets Air의 익스프레스 화물 터미널은 일일 최대 2,000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운영 지원의 중심 역할

포트클랑, 세계 최고 컨테이너 항만 10위권 글로벌 항만 엘리트 합류

- 포트 클랑은 2025년 세계 100대 항만 목록에서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공식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4년에는 20피트 등가물(TEU) 1,464만 개를 처리하는 역사적인 이정표에 도달
- 10위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포트클랑은 글로벌로 인정받는 독점 항구 그룹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 해양 환경에서 그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
- 포트클랑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캐리 아일랜드 서드 포트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3천만 TEU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무역의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축된 스마트하고 자동화되며 지속 가능한 항구 생태계를 지향

머스크 에가유통센터 (MEGA DC) 오픈

- 머스크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큰 계약 물류 센터인 머스크 메가 유통 센터(메가 DC)를 개설.
- 메가 DC는 총 면적 약 18만 평방미터, 10만개 이상의 팔레트를 수용할수 있는 특별히 설계된 물류 센터 다중 고객 시설.
- 이곳은 머스크의 주요 환적 허브인 탄중 펠레파스 항구에서 약 340km 떨어져 있음.

PENANG, MALYASIA

경제 동향

1. 미국관세는 말레이시아 수출에 큰 타격

- RHB리서치는 미국의 최근관세 확정은 말레이시아 수출주도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
- 분석에 따르면 관세가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에 최대 0.43% 포인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세 인하를 위해 2,500억 달러 이상의 구매 및 투자를 약속. 또한 정부는 특정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겠다고 약속

2. 위스마 푸트라 (말레이시아 외교부): 말레이시아의 BRICS 참여가 빠른 경제성장 견인

- 말레이시아는 BRICS가입이 보다 빠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팜 오일, 고무, 헬스 케어 분야에서 주요 수출기회 확대 기대
- BRICS는 에너지,중요광물,기술 협력기회도 제공하며, 말레이시아의 BRICS대상교육은 이미 8180억 링깃으로 전체 글로벌 교역의 35%에 달함

3. 무디스, 말레이시아 전력부문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 무디스는 말레이시아의 전력부문의 A3등급 전말응 '긍정적 ' 으로 상향
-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 석탄가격 안정전망,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 등이 반영

4. 인텔, 말레이시아를 조립,테스트 허브로 만들기

- 인텔은 말레이시아를 자사의 조립, 테스트 운영 허브로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8억6000만 링깃 투자 예정

- 페낭의 120억 링깃 규모 첨단 패키징 시설은 99% 완공단계이며, 인텔은 교육 및 R&D 협력을 위한 208만 링깃 규모의 인재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중

5. 중국, 말레이시아,캄보디아에 미국과의 무역협정 관련 해명요구

- 중국이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의 새로운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제기.
-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및 안보조치와 정합되는 조항들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우려 표명.

MILAN, ITALY

밀라노 지점소식

특송사업 서비스 홍보 : 밀라노지점 주소지에서 특송화물에 대한 배송대행 서비스 제공

배송대행지 주소 : MAX LOGISTICS S.R.L. Milano, Italy

Viale Europa 59, Edificio 21, 20054, Segrate (MI), Italy

지점휴무일 : 1/1(목) 새해 첫날, 1/6(화) 공헌대축일.

물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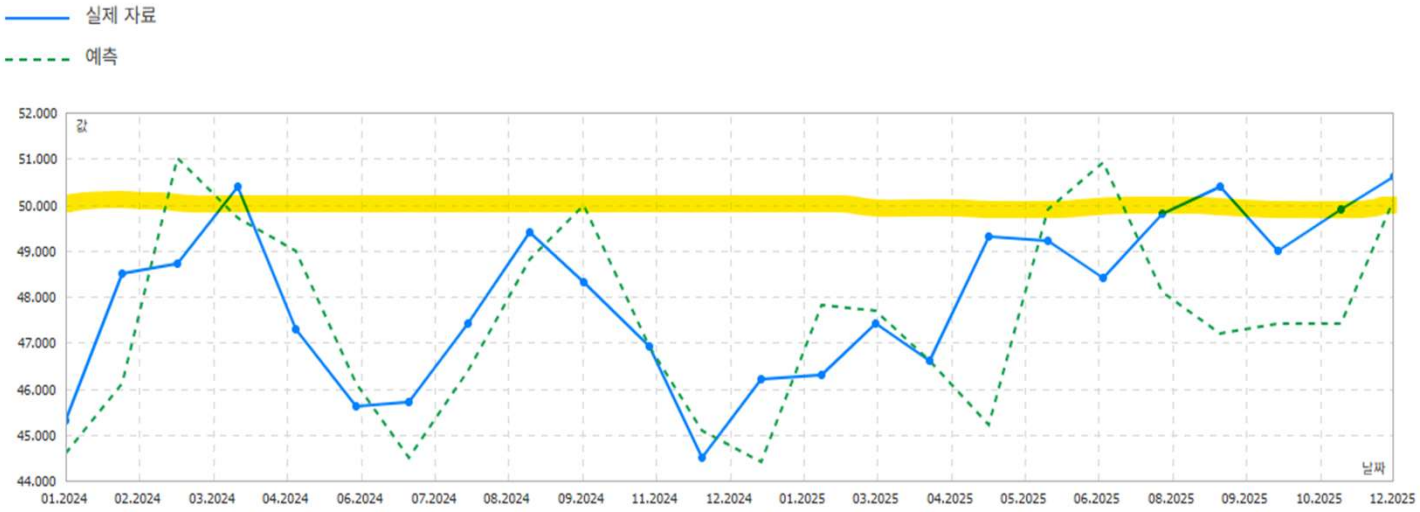
항공사	구분	노선	Mon	Tue	Wed	Thu	Fri	Sat	Sun	기종
KE	화물기	MXP/ICN			KE9576 2025/1610+1		KE9576 2025/1610+1		KE514 2355/1900+1 (747-8F)	777-F
	여객기	MXP/ICN	KE928 2005/1535+1		KE928 2005/1535+1		KE928 2005/1535+1		KE928 2005/1535+1	B773
		FCO/ICN	KE932 2200/1725+1		KE932 2200/1725+1			KE932 2200/1725+1		A350
KJ (Air Incheon)	화물기	MXP/ICN	KJ798 1205/0635+1				KJ790 1205/0635+1			747-400F
OZ	여객기	FCO/ICN		OZ562 2200/1735+1		OZ562 2200/1735+1	OZ562 2200/1735+1		OZ562 2200/1735+1	A350-900
TW	여객기	FCO/ICN		TW406 1900/1450+1	TW406 1900/1450+1	TW406 1900/1450+1			TW406 1900/1450+1	A330
C8	화물기	MXP/ICN		C87117 1600/1025+1				C84096 0955/0420+1	C87117 0845/0320+1	747-400F

MILAN, ITALY

물류동향

이탈리아 제조업 동향

- 2025년 12월 이탈리아 구매자 PMI 수치 50.6 (11월 49.9 대비 상승)
- 기준선(5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경기 상승, 기준선 (50) 이하시 경기 위축
- 제조업 부문은 2025년 PMI지수 50 이하로 수축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주문 및 생산 하락세가 점차 완화되고 있어 경기 반등에 대한 조짐도 같이 보임



2026년 상반기 이탈리아 해상 물동량 전망

- 세계 경기 둔화: 2026년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어 산업 생산 및 소비 위축 -> 물동량 둔화 전망
- 팬데믹 시기 발주된 신조선 선복량(선박 공간) 증가로 인하여 운임하락 압력 지속 예상
- 9월은 성수기 이후 시즌이지만, 과잉 선복과 탄력적인 운임 경향 때문에, 대폭 상승보다는 보합 또는 소폭 인상/인하가 혼재 전망
- 2026년 수에즈 운하 운항은 점진적 복귀 가능성 있음 : 일부선사(CMA-CGM)의 경우 26년 1월부 일부 노선 수에즈 복귀 서비스 재개

PARIS, FRANCE

물류 동향

항공 물류 동향

- 연말 수요 급증으로 주요항공사(KE,OZ,TW등) 의 공급 부족 현상 발생 및 단기 운임 상승
- 2026년 1월 부 프랑스발/착 화물에 적용되는 전체적인 핸들링 요율(THC, X-Ray, DGR 체크 등) 인상
- **OZ** : 파리 ↔ 인천 여객기 운항이 2026년 1월부터 주 4회에서 주 5회로 증편 (D6편 추가)
- **TW** : LITHIUM 및 SODIUM ELI/ELM 배터리 운송 시, 항공사 자체 신고서 작성 의무화

파리/인천 SKD

항공사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E	여객기	✓	✓	✓	✓	✓	✓	
	화물기					✓		✓
OZ	여객기	✓		✓		✓	✓	✓
TW	여객기	✓		✓		✓	✓	✓

PARIS, FRANCE

물류 동향

해상 물류 동향

First Available Vessel Schedule

PORT	VESSEL	CUT-OFF	ETD	ETA	T/T
LE HAVRE	MSC OLBIA	2JAN	2026-01-08	2026-03-07	58 DAYS
FOS SUR MER	YM WELLHEAD	8JAN	2026-01-11	2026-02-17	37 DAYS

2026년 1월부터 LE HAVRE – BUSAN 구간 T/S 노선으로 변경

– 기존 DIRECT 노선으로 운영 중인 FE4 Lane Service는 2026년 1월부로Singapore / Ningbo / Kaohsiung 경유(T/S)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이며, DIRECT 서비스는 FE6 Lane Service의 제한적인 물량에 한해 제공될 예정

선박 운항 및 내륙 운송 현황

– 홍해 항로 일부 재개 움직임으로 수에즈 운하 경유 선박 운항 정상화에 대한 기대 증폭
– 연말·연초 항만 혼잡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 트럭 대기 시간과 터미널 처리 지연 발생
– FCL 내륙 운송 배정은 CUT-OFF 최소 7일 전 사전 확정 필요

MAX LOGISTICS

CONTACT

서울 영업팀

sales.kr@maxlogis.com

김희명 팀장	hmkim@maxlogis.com	010-9281-0109	070-5096-9389
장명수 수석	simon.jang@maxlogis.com	010-4437-5175	070-5096-9387
이진섭 매니저	david.lee@maxlogis.com	010-8969-7433	070-5096-9472

부산 영업팀

bus@maxlogis.com

최승린 지점장	steve.choi@maxlogis.com	010-8619-5761	070-5096-0585
박지선 매니저	amy.park@maxlogis.com	010-2825-2252	070-5096-0582

맥스로지스틱스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Nxhxjcxj